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머쓱하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머쓱하다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머쓱하다

완성된 이름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머쓱하다

한눈에 보는 기록

뜻
어울리지 않게 키가 크다.

요약 연대표

표기	20세기	현재
멋속하다		
머쓱하다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어울리지 않게 키가 크다.

문헌의 첫 기록

20세기

수록 용례

6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머쓱하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어울리지 않게 키가 크다.



머쓱하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머쓱하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멋속하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
머쓱하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
멋속하- 문헌 수록 표기	—	—	—	—	—	● →
멋식하- 문헌 수록 표기	—	—	—	—	—	● →
머쓱하- 문헌 수록 표기	—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멋속하다

20세기

- 머쓱하다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3종

멋습하-, 멋식하-, 머쓱하-

↳ 머쓱하단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머쓱하다’의 옛말인 ‘멋습하다’는 20세기부터 나타난다.

↳ 말의 구성과 어원

‘멋습하다’는 어근 ‘멋습’과 ‘하다’가 결합한 것이다.

ㄴ 표기와 소리의 특징

이후 ‘멋습’이 연철 표기된 ‘머쓱하다’가 나타난다. ‘멋습’과 ‘머쓱’은 표기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사실 같은 형태이다. 드물지만 ‘멋식하-’도 보인다.

⇒ 오늘의 형태로 이어진 과정

‘머쓱하다’의 형태가 현재까지 이어진다. 창피를 당하거나 흥이 꺾여 어색하고 부끄럽다를 뜻하는 예가 주로 확인된다.

📖 문헌 속의 머쓱하다

전체 용례 6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20세기 멋습하-, 멋식하-, 머쓱하- 용례 6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멋습하-, 멋식하-, 머쓱하-

📖 출처 1924 동아일보 11월 11일 3면

용례 01

66 문헌 용례

그래도 봉구는 아모 대답이 업는 것을 보고는 순영은 멋습하야 고개를 기울여 봉구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웨 노여섯서요?" 한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출처 1925 동아일보 10월 3일 6면

용례 02

66 문헌 용례

기생 아니란 말에 몽룡은 잠깐 멋식하더니.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출처 1925 동아일보 12월 26일 3면

용례 03

66 문헌 용례

어멈은 멋습해 안젓다가 인숙이를 껌눈으로 쏘 한번 훑터보며 날어났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출처 1929 동아일보 1월 21일 3면

용례 04

66 문헌 용례

왕이 말슴이 업슴으로 수양대군은 잠간 머쓱하야 탐전에서 물러나왔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출처 1929 동아일보 2월19일 6면

용례 05

66 문헌 용례

윤성의 말에 치관은 부쓰러운 듯이 멋습하고, 명회는 고개를 쓰덕쓰덕하고 코웃음을 한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66 문헌 용례

그러치 안어도 화가 나는 이 자리에 김서방이 가장 남편인 체하는 꼴이 더욱 금봉의 화를 도도 았다. 김서방은 머쓱하야 물러서면서 『아버니께서 가 보고 가티 오라고 그러십데다』 하엿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머쓱하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머쓱하다의 뜻과 역사